

2025년 일본 하계 해외여행 예약동향 보고

'25. 7. 7.(월) /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 총괄

- (여름휴가 기간) 일본의 전통 명절인 오봉(お盆) 기간(8. 13.~8. 16.)과 공휴일(8. 11.) 등을 포함하여 8. 9.(토)~ 8. 17.(일) 최대 9연휴 전망

< 일본 여름휴가 연휴('25년 8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4	5	6	7	8	9
10	11 산의 날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여행수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간 여행수요 대비 하계 수요는 둔화세를 보이나, 해외여행은 전년 동기比 약 108% 증가 (전년 동기比 ▲(연간) 해외 121%, 국내 100%, ▲(하계) 해외 108%, 국내 95%)
- (인기 목적지) 연휴 장기화로 전통적인 여름철 인기 목적지(괌, 하와이, 한국, 대만 등) 外 구미주권까지 다변화 경향 뚜렷
 - 한국(서울)은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최상위권(1~2위) 랭크인
 - 구미주권 인기 증가에 따라 여행경비도 전년比 상승한 것으로 집계
- (예약시기) '25년 5월(32.7%), '25년 6월(30.1%) 등 전년보다 이른 시점
- (출발일자) 연휴가 시작되는 8. 9.(토)~8. 10.(일)이 가장 높게 예측
 - 9일은 가장 혼잡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는 17일 대비 6배 이상 혼잡 가능성
- (고객층) 가족여행이 대다수, 인기 목적지는 하와이·괌·싱가포르 등

< '25년 여름 해외여행 예약동향 순위 >

순위	HIS (도시)	레이와트래블 (국가)	익스피디아 (도시)	JTB (국가)	한큐교통사 (국가)
전년 비 예약자수	108%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108%
1	서울	한국	호놀룰루	하와이	유럽
2	타이베이	대만	서울	한국	대만
3	호놀룰루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한국
4	싱가포르	하와이	방콕	싱가포르	중국
5	방콕	태국	발리	괌	베트남
6	괌	싱가포르	파리	미국	-
7	세부	-	타이베이	호주	-
8	홍콩	-	다낭	홍콩/마카오	-
9	케언즈	-	로스앤젤레스	인도네시아	-
10	다낭	-	오렌지카운티	태국	-

□ 세부내용

○ (HIS) 서울·타이베이·호놀룰루 등 '전통 강호'의 수요 지속

- (인기 목적지) 상위 1~5위 지역은 전년도와 유사한 패턴(서울, 타이베이, 호놀룰루, 싱가포르, 방콕)인 가운데 호놀룰루가 환율 및 직항편 증편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120.3% 증가하였고, '24년 11월 비자가 면제된 중국 상하이가 전년비 249.2%로 가장 크게 증가
- (여행경비) 평균 객단가는 전년비 107.0% 상승한 204,300엔으로, 유럽·중동 등 장거리·고가 여행지 예약 증가가 주 원인
- (예약시기) '25년 5월(32.7%), '25년 6월(30.1%) 등
- (고객층) 자녀 동반 가족여행(44.9%), 커플·부부 여행(19.5%)
- (출발일자) 8. 9.(토), 8. 10.(일), 8. 8.(금) 順

- (국내여행) 전년比 107.6%로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로 예약시기가 앞당겨진 경향 有. 지역별로는 7월말 최초의 대형 테마파크 개장을 앞둔 **오키나와**(전년比 110.7%) 및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지인 **오사카**(전년比 192.9%)등이 인기
- (레이와트래블) ‘한국 일변도’ 탈피, 해외여행 선택지 다변화
 - (인기 목적지) 한국(27.3%), 대만(19.7%)이 전년도에 이어 1,2위를 차지하여 ‘가깝고 저렴하며 간편한’ 해외여행이 인기를 보이는 한편, 기존 한국으로 집중되었던 여행지 구성이 ‘25년에는 대만, 하와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되어 여행 선택지가 한층 넓어지고 있는 경향
 - (여행경비) 전체 지역 평균 여행경비가 상승(114,085엔, 전년比 11.6% 증가)하는 가운데, 발리는 환율 영향으로 전년比 5만 엔(약 50만 원) 가량 낮아져 가성비 높은 해외여행 목적지로 주목
- (익스피디아) 미국·유럽 등 장거리 지역이 인기 급상승
 - (인기 목적지) 5월 황금연휴(골든위크)는 서울, 타이베이 등 근거리 도시의 인기가 높았던 반면, 하계 기간은 다소 긴 오봉(お盆) 연휴 영향으로 부동의 인기 여행지인 호놀룰루(1위) 외에도 파리(6위), 로스앤젤레스(9위), 오렌지카운티(10위) 등 장거리 목적지 다수 포진
 - (출발일자) 8. 9.(토)~8. 11.(월) 기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
 - (호텔 內 선호시설) 수영장, 주방, 오션뷰, 공항 무료셔틀 順으로, 최근 물가 상승 및 엔화 약세에 따라 현지 이동이나 식비 등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향
- (JTB) 가족여행(하와이, 괌 등) 및 여성 동반 여행(한국, 대만) 강세
 - (인기 목적지) ‘24년 1,2위는 금년도도 동일하게 상위권을 유지(1위

- 하와이, 2위 한국)하였고, 대만(3위), 싱가포르(4위), 괌(5위), 미국(6위), 호주(7위) 등도 전년도 순위와 비슷한 추이. 한편, 한국·대만은 여성 간 여행이 다수로, 엔화 약세 영향에 비교적 덜 민감한 지역
- (고객층) 전체의 약 75%가 가족여행(▲(괌) 가족여행 90%, ▲(하와이) 가족여행 80%, ▲(싱가포르) 초등학생·중학생 자녀 동반 가족여행지로 인기)
 - (출발일자) 8. 10.(일), 8. 9.(토), 8. 11.(월) 順
 - (국내여행) 인기 목적지는 대형 테마파크 개장을 앞둔 오키나와(1위), 음식자연 체험이 인기인 홋카이도(2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지인 간사이(3위) 順, 출발일은 7. 19.(토), 8. 9.(토), 8. 10.(일) 順으로 해외여행 대비 1박 또는 2박의 짧은 여행 선호

- (한큐교통사) 근거리 중심에서 중·장거리 노선까지 회복세 확대
 - (인기 목적지) 유럽(전년比 1.3배), 대만, 한국, 중국(단기체류 비자 면제 영향으로 전년比 3.8배), 베트남 順으로, '24년 아시아 지역 회복이 두드러진 것에 반해 올해는 유럽, 이집트, 터키, 중남미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한 장거리 노선 회복 현저
 - (출발일자) 8. 10.(일), 8. 9.(토), 7. 18.(금) 順
 - (국내여행) 전년比 95%로 전체 수요는 다소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영향으로 간사이 지역이 전년比 1.2배 증가, 세부 관광지의 경우 후지산이 금년부터 도입된 안전 수칙 및 입장인원 제한 등으로 전년比 1.4배 증가하는 등 인기 지속

붙임: 참고문헌 1부. 끝.

붙임

참고문헌

- HIS, 2025년夏休み旅行予約動向, 2025. 7. 2. <https://www.his.co.jp/news/20483.html>

- JTB, 2025년夏休み(7月15日~8月31日) JTB人気方面ランキング, 2025. 6. 26.
https://www.jtbcorp.jp/jp/newsroom/2025/06/26_jtb_ranking.html

- PRTIMES, エクスぺディア、2025年夏の人気海外旅行先ランキングを発表 最大9連休! お盆期間中のフライトとホテルの混雑予想日も公開, 2025. 6. 26.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300.000003373.html>

- PRTIMES, 旅行アプリ『NEWT(ニュート)』、【U29世代】2025年夏休み海外旅行トレンドを発表, 2025. 6. 27.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202.000077082.html>

- PRTIMES, 2025년 夏休み 旅行動向 海外旅行は欧州、国内旅行は近畿が人気 【海外旅行】前年比 108% 中国の回復が顕著 【国内旅行】前年比 95% 大阪・関西万博、沖縄ジャングルリアが好調, 2025. 7. 2.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585.000007099.html>